

- 주요 뉴스: 미국 8월 개인소비지출(PCE), 인플레이션 및 성장 둔화 시사
    - 연준 주요 인사(보우먼 이사,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), 금리인하 감속 필요성 주장
    - 유로존 주요국(프랑스, 스페인) 물가상승률 급락으로 ECB 금리인하 기대 확대
    - 일본 이시바 자민당 총재 당선인, 기사다 내각의 경제정책 계승 시사
  - 국제금융시장: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에 기반한 금리인하 기대로 위험선호 유지
    - 주가: 미국 S&P500은 고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승세 둔화.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 유로 Stoxx600은 중국 관련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
   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이후 엔화 가치 급등으로 소폭 하락 유로화 가치는 0.1% 하락, 엔화 가치는 1.8% 상승
   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로 하락 독일은 프랑스·스페인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ECB 금리인하 기대로 5bp 하락
- ※ 뉴욕 1M NDF 증가 1307.9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10.5원, 0.03% 상승). 한국 CDS 보합

|    |      | 9/27일   | 9/26일   | 전일대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9/27일   | 9/26일   | 전일대비  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5,738.2 | 5,745.4 | -0.13%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3.75%   | 3.80%   | -5bp    |
|    | 유럽   | 528.08  | 525.61  | +0.47%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2.13%   | 2.18%   | -5bp    |
|    | 중국   | 3,087.5 | 3,001.0 | +2.88% |                 | 영국    | 3.98%   | 4.01%   | -3bp    |
|    | 일본   | 39,830  | 38,926  | +2.32%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31bp    | 31bp    | +0bp    |
|    | 한국   | 2,649.8 | 2,671.6 | +2.06%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59bp    | 59bp    | -0bp  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100.38  | 100.56  | -0.18%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396bp   | 394bp   | +2bp    |
|    | 유로화  | 1.1162  | 1.1177  | -0.13% |                 | VIX   | 16.96   | 15.37   | +10.34% |
|    | 엔화   | 142.21  | 144.81  | +1.83%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68.18   | 67.67   | +0.75%  |
|    | 위안화  | 7.0110  | 7.0109  | -0.00%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459.95  | 458.1   | +0.40%  |
|    | 원화   | 1,310.1 | 1,318.0 | +0.60%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2,658.2 | 2,672.4 | -0.53% 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미국 8월 개인소비지출(PCE), 인플레이션 및 성장 둔화 시사

- 경제분석국(BEA)이 발표한 8월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+2.2%<sub>yoy</sub>로 하락세를 재개\*했으며 예상치(+2.3%)를 하회. 서비스 가격 상승률(+3.7%)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상품 가격(-0.9%)이 내구재(-2.2%) 중심으로 하락한 데 기인

\* 3개월 연속 하락(3월 +2.8% → 4월 +2.7% → 5월 +2.6% → 6월 +2.4%)한 후 7월 들어 반등(+2.5%)

- 개인소득 증가율은 +0.2%<sub>mom</sub>로 예상(+0.4%)을 밑돌면서 전월(+0.3%) 대비 둔화. 개인지출은 +0.2%<sub>mom</sub> 증가했으며 전월(+0.5%) 및 예상(+0.3%)을 하회
- 미시건대는 9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(70.1)를 예비치(69.0) 대비 상향 조정하면서, 고물가 부담 등으로 해당 수치가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
- 애틀랜타 연은 GDPNow의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는 25일 2.807%에서 27일 3.077%로 상향. 이는 3분기분 추정 이래(7.26일~) 가장 높은 수치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연준 주요 인사들, 금리인하 감속 필요성 주장

- 보우먼 이사, 최근의 미국 경제지표는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현재 미국 실업률 4.2%는 본인의 완전고용 추정치보다 훨씬 낮다고 평가. 또한, 기업들로부터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증거를 얻고 있다고 부언
-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, 9.18일 FOMC가 결정한 빅컷(정책금리 -50bp)은 연준이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강하고 명확하게 전달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도, 향후에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춰야한다고 주장

### ■ 유로존 주요국 물가상승률 급락으로 ECB 금리인하 기대 확대

- 프랑스 국립통계연구소(Insee)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<sub>CPI</sub> 상승률은 +1.5%<sub>yoy</sub>로 전월(+2.2%) 및 예상(+1.9%)을 하회했으며, 스페인 통계청(INE)이 발표한 9월 CPI 상승률(+1.7%)도 전월(+2.4%)과 예상(+1.9%)을 하회(이상 유로존 통합<sub>harmonized</sub> 기준)

- 이에 따라, 유로존 OIS 시장에 반영된 10.17일 ECB 정책위원회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은 9.26일 60.8%에서 27일 82.2%로 큰 폭 상승(8.5일 이후 최고)

#### ■ 일본 자민당 총재 당선인, 기시다 내각의 경제정책 계승 시사

- 27일 자민당 신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후보(전 간사장)가 2차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(전체 415표, 유효표 409표 중 215표 획득). 10.1일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의 차기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기시다 현 총리의 후임으로 최종 선출될 예정
- 이시바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피, 소비 활성화 등을 강조하면서 기시다 전 총리의 경제정책을 계승할 것을 시사했으며, 시장에서는 BOJ의 추가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엔화가 큰 폭 강세(+1.8%)

#### ■ 중국 정부, 국경절 연휴(10.1~7일)를 앞두고 완화적 통화정책 여건을 강화

- 중국인민은행은 27일 오전 중 당초 예고(24일 경기부양책 발표 시)한대로 지급준비율 및 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각각 -50bp, -20bp 인하한 데 이어, 같은 날 저녁 SLF<sub>단기유동성지원창구</sub> 금리를 인하(-20bp). 이는 금년 중 7월(-20bp)에 두 번째 조치

#### ■ Moody's,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(A2 → Baa1)

- 최근 헤즈볼라와의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하마스와의 휴전 가능성은 낮아지는 등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는 평가에 근거

#### ■ 브라질 중앙은행\*(BCB), 통화·재정정책 간 조화 필요성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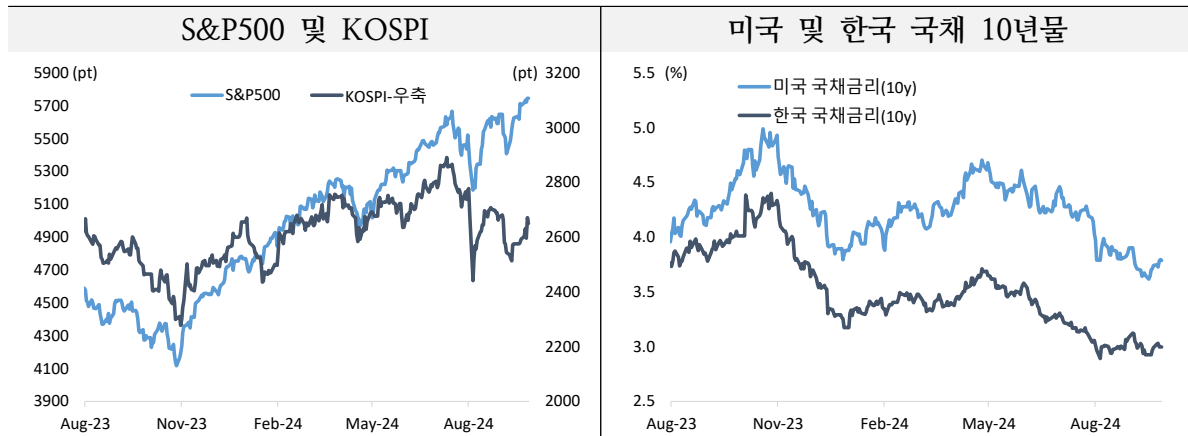
\* 인플레이션 반등(4월 3.69% → 7월 4.50%)에 대응해 9.18일 정책금리를 인상(10.50% → 10.75%)

- 캄포스 네투 총재,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이 미세하게<sup>at the margin</sup> 나아지고 있기는 하나,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병행할 경우 통화정책의 파급을 방해하는 비효율이 초래되며 금리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발언
- 한편, BCB가 매주 집계하는 서베이(FOCUS) 결과, 브라질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말 정책금리(Selic target rate)를 현재보다 0.75%p 높은 11.50%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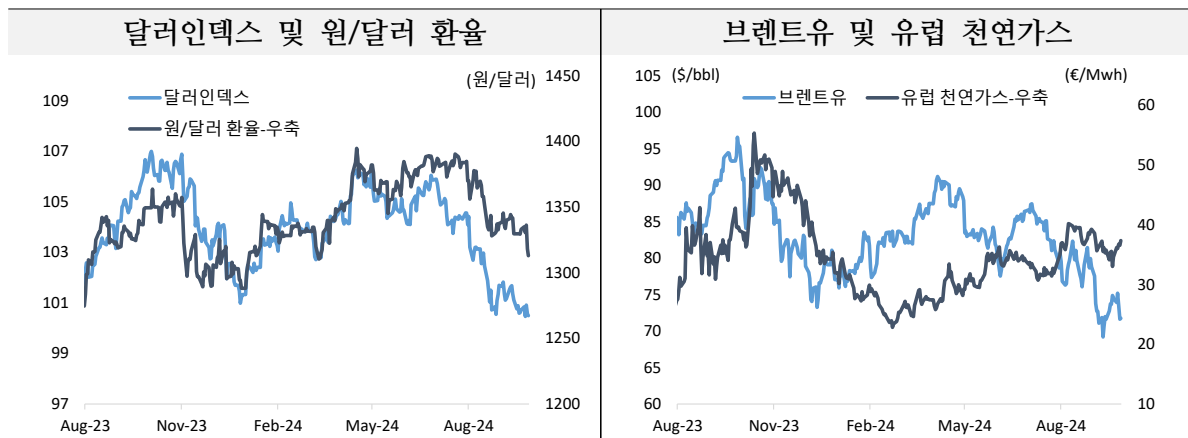
### 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일본 8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, 독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, 영국 2분기 GDP<sub>확정치</sub>, 중국 9월 국가통계국 및 차이신 PMI(제조업·서비스업) 등 경제지표 발표 예정
- 연준 파월 의장의 전미실물경제협회<sub>NABE</sub> 연설, ECB 라가르드 총재의 유럽의회 경제·통화위원회<sub>ECON</sub> 연설 등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예정(9.30일 현지시각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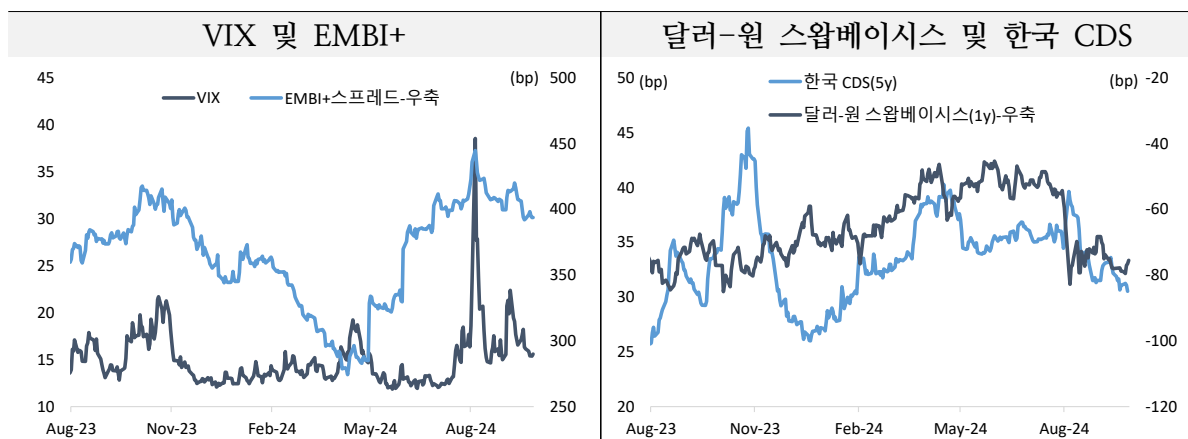
## 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[swlee@kcif.or.kr](mailto:swlee@kcif.or.kr)